



## 연세간호를 태동 시킨 외국 선교사들

이정열<sup>1)</sup> · 조윤희<sup>2)</sup> · 고지숙<sup>3)</sup> · 김정애<sup>4)</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국내 간호는 간호교육면에서나 간호실무면에서 세계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규모로 발전되어 왔다. 1903년에 시작된 이래 2010년 현재 3년제 간호대학이 71개소, 4년제 간호대학이 103개소이며, 한해에 12,683명의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한국간호평가원, 2010). 간호학 교육 제도도 1976년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아시아 간호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고, 2001년부터는 전문간호사 교육 제도를 석사학위과정으로 시작하여 간호실무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996).

한국의 간호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는 처음 한국에 간호를 도입하고 간호교육을 시작한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가 시작된 1900년 초 한국의 사회는 여성은 바깥출입도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고 직업여성을 천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가 여성이 주도적인 간호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실정이었다(이만열, 2003). 그러나 한국에 간호교육을 시작하였고, 여성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외국 선교사들로 인하여 한국의 간호는 오늘날 세계 속의 간호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한국의 간호교육은 1903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Margaret J. Edmunds에 의하여 설립된 보구녀관 간호원 양성소로부터

시작되었다. 보구녀관 간호원 양성소는 1912년부터는 동대문부인병원 양성소와 통합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나, 1932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재학생은 4명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1933년 폐소되었다(이꽃메, 2002).

보구녀관 간호원 양성소에 이어 1906년에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Esther Lucas Shields에 의해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양성소가 간호교육을 시작하였다.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양성소는 1910년 첫 졸업생 김배세를 배출한 이래 2010년까지 100년간 지속적으로 간호학 졸업생을 배출해 오고 있다. 2010년은 국내에서 현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간호학 졸업생을 배출한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국내 간호역사관점으로 볼 때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초기 간호교육의 시작부터 근대적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간호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최초로 간호역사로 기록된 연구는 이귀향(1966)의 ‘한국 간호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1880년대부터 1960년간의 기간 동안 간호교육 변화를 고찰하였다. 비슷한 시기의 간호역사를 다룬 연구로써 홍신영(1972)의 초기 간호교육 시작부터 1970년 사이의 국내 간호 발전상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간호행정, 간호사업, 간호교육제도, 간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후 이영복(1979), 이자형(1986), 박정호(1989), 이윤주(2000), 그리고 이꽃메(2002)로 이어지며 초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간호 역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한국에 간호교육이 정착된 것은 외국 선교사들의 기여에

#### 주요어 : 외국 선교사, 한국 간호

\* 본 연구는 2010년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수련직

4)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전자 E-mail: jakim@k1.ac.kr)

투고일: 2010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6일

의한 것이었다. 국내 최초로 1903년 시작된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나 1906년 시작된 세브란스 간호원양성소 모두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Margaret J. Edmunds와 Esther Lucas Shields의 노고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특히 1900년 초에 개발되지도 않은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오면서 선교사 중에서는 전염병으로 몇 년 만에 사망하는 선교사도 있었으며, 병을 얻어 곧 본국으로 소환되는 선교사도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간호교육과 병원실무, 지역사회 전염병사업 등에 기여한 외국 선교사들의 노고와 기여는 우리나라 간호가 오늘날에 이르는 발전 역사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호역사 연구들인 이연옥(1979), 이자형(1986), 박정호(1989), 이윤주(2000), 그리고 이꽃매(2002)의 연구들은 1900년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 간호의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뿐, 초기 간호교육을 시작하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올해로 간호사 배출 100주년이 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초기 교육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분석함으로써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확인하고 기억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기 연세 간호에 관한 기록과 문헌들을 통해 수행된 역사적 접근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기 연세 간호 태동시기부터 1917년(세브란스 간호부양성부 시기)에 활동한 선교사들 16인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자료 수집 도구 및 방법

자료수집도구는 기존의 간호역사 연구보고서에 언급된 선교사들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발간한 ‘연세간호, 100년의 이야기(1906~2006)’, 1900년대 초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매달 그들의 활동상을 보고한 ‘Korea Mission Field’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먼저 기존 간호역사 연구보고서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 보고서에 포함된 선교사들 중 1895~1917년에 활동한 선교사 리스트를 발췌하였다. 그 후 1895년부터 1917년 사이의 Korean Mission Field 보고서 중에서 연세간호 100년사와 기존의 간호역사 보고서에 언급된 간호 선교사들에 대한 기사들을 발췌하여 기술하였다.

## 연구 결과

### 초기 간호교육 태동에 기여한 선교사들

1895년부터 1917년까지 한국간호가 태동하는 시기에 밑거름이 되거나 실제적으로 기여한 선교사들은 약 16명이었는데, 이들을 한국에 내한한 년도 순으로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 Foreign nurse missionaries sent to Korea (1895~1917)

No	Name	Korean name	Birth yrs~ death yrs	Belong to	Visit Korea~ departure from Korea	Regions
1	A. P. Jacobson	아각선(雅各善)	1868~1897	Presbyterian Church(U.S)	1895~1897	Seoul
2	Campbell, Josephine P.	강모인(姜募仁)	1853~1920	Methodist church(U.S)	1897~1920	Seoul
3	Shields, Esther Lucas	수일사(秀日期)	1869~1941	Methodist church(U.S)	1897~1938	Seoul, Suncheon
4	Edmunds, Margaret J.			Methodist church(U.S)	1902~?	Seoul, Pyeongyang
5	C. H. Cameron		1871~1945	Presbyterian Church(U.S)	1905~1909	Daegu
6	Harris, Gilberta			Methodist church(U.S)	1910~1916	Seoul, Gaeseoun
7	Forsyth, Helen			Presbyterian Church(U.S)	1911~1915	Seoul
8	Shepping, Elisabeth J.	서서평(徐舒平)	1880~1934	Methodist church(U.S)	1912~1934	Seoul, Gunsan, Gwangju
9	Napier, Gertrude	남성진(南性眞)		Presbyterian Church(Australia)	1912~1937	Seoul, Masan, Jinju, Tongnae
10	Burpee, Ella B.			Presbyterian Church(U.S)	1912~?	
11	Ludlow, Theresa L.			Presbyterian Church(U.S)	1912~1938	Seoul
12	Bekins, Elizabeth B.	배견인(裵堅仁)		Presbyterian Church(U.S)	1915~1919	Seoul, Daegu
13	Esteb, Kathlyn M.	예사탑(芮思塔)		Presbyterian Church(U.S)	1915~1940	Seoul, Cheongju
14	Reiner, Ella M.		1884~1962	Presbyterian Church(U.S)	1916~1923	Seoul, Pyeongyang, Cheongju, Daegu
15	F. Fisher			Persian Ministry	1916~?	
16	Hughes, Eleanor			Presbyterian Church(Canada)	1917~?	Seoul

16명 중 호주와 캐나다, 페르시아에서 온 선교사 각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었다. 13명 미국 선교사중 11명이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인 것을 보면 북장로회가 1900년대 초기에 한국 선교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활동지역이 서울이었으나 일부는 북쪽인 평양, 개성, 그리고 남쪽인 청주, 마산, 진주, 봉래, 군산, 광주, 대구 등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한국을 떠난 년도가 확인되지 않는 5명 외에 나머지 11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봉사한 기간을 보면 2년 만에 순직한 Jacobson과 그 외 7명은 10년 미만이었고, 5명은 20년 이상 봉사하였다. 그중 가장 오래 한국에서 봉사한 선교사는 1897년에 한국에 와서 1906년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시작하였으며 42년간 한국에서 봉사한 E. L. Shields 선교사였다.

###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교육과 실무에 참여한 선교사들

1906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기에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 16명중 서울에서 활동하였으나 보구녀관 간호부양성소에서 주로 활동한 Edmonds, 서울외의 지역에서 활동한 1명을 제외한 14명 선교사들은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에서 간호교육과 병원간호실무에 기여한 선교사들이다. 이들 14명의 활동상을 활동한 년도 순으로 기술하였다.

#### ● Anna P. Jacobson

제4대 제중원 원장으로 1893년 부임한 Oliver R. Avison은 수술과 환자 돌봄에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느끼고, 미국 북장로회에 간호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에 따라 1895년 4월 6일 Jacobson이 제중원 간호원장으로 파견되었다. 미국 북장로회가 한국에 파견한 최초의 간호사였던 그녀는 한국 간호사업과 간호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힘썼으나 결국 과로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아메바성 이질에 걸린 후 그 후유증으로 생긴 간농양에 의해 내한 2년 만인 1897년 1월 20일 순직하였다. 1897년 1월 21일자 '독립신문'에 게재된 Jacobson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면 Jacobson의 죽음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래는 '독립신문' 기사를 현대어로 바꾸어 삽입하였다.

*'미국 장로교회 병원에 환자를 간호하던 부인인 제콕슨은 본래 노르웨이 출신 부인인데 어려서 미국으로 가서 병원에 들어가 환자 간호하는 학문을 배워 가지고 교회에 가서 외국에 병원도 없고 환자 간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자기 평생 목숨과 배운 학문을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여 쓰겠노라고 정하였다.*

*교회에서는 이 부인을 조선 서울 장로교회 제중원병원으로 보내어 거기서 3년 동안을 조선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고 병든 사람들을 착실히 몇 해를 두고 구원하여 주며, 좋은 말과 옳은 교리를 보는 사람마다 일러주어 죽는 사람의 마음들은 위로하고 산 사람의 행실을 옳게 가르치며, 세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선에 빛나도록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더러운 길과 부정한 음식, 깨끗하지 못한 물을 어쩔 수 없이 조선에서 먹고 지내더니 작년 여름에 이질에 걸려 죽게 되었다. 다행히 살아났으나 그 여독이 종시 낫지 않아 간경에 종기가 생겨 학문 있는 의원들이 힘껏 구원하려 하되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인즉 하나님이 찾아 가신 것이다. 그 부인이 한 달 동안을 앓다가 하늘로 갔으니 이 부인은 조선에 있는 이보다는 매우 극락이나 조선 인민에게는 크게 손해라.*

*부인의 장례를 22일 오전에 언더우드 교수 집에서 거행할 터인즉 누구든지 평일에 이 부인을 알던 이는 언더우드 교수 집으로 와서 장례에 참여하고, 마지막 한번 조선백성 사랑하던 이 얼굴을 보오 산소는 양화진 외국 매장지라. 거기까지 가서 참례하고 싶은 이는 다 가시오'*

#### ● Esther Lucas Shields

1897년 Jacobson이 사망하자, 제중원 원장이었던 Avison의 요청에 따라,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1897년 10월 14일 E. L. Shields를 파송하게 되었다. Shields는 간호업무 외에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의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간호, 봉대 감는 법, 외과적 드레싱의 준비, 수술방 준비 및 관리 등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1902년부터 몇 년간 Shields는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로 잠시 휴직을 하였다.

1904년 9월 서울 남대문 밖 북송아골에 한국 최초로 40명 상 규모의 현대식 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건립되자, 전문적인 간호 인력에 대한 요구도도 더욱 높아졌다. 1906년 세브란스병원의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자 Shields는 세브란스병원 원장인 Avison과 의사 J.W. Hirst와 미국 선교부 연합재단과의 협의 하에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부양성소(Severance Hospital Training School for Nurses)를 개교하였고, 초대 양성소장으로 는 Shields가 취임하였다.

간호부양성소 초기에는 간호교육이 그다지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이유로는 간호학생의 모집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한국 여성들은 집안에 갇혀 생활 하다가 피 땀과 조혼 풍습에다 직업여성에 대한 멸시풍조까지 있어 지원 학생 수는 더욱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0년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한 후 1911년부터는 간호부양성소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Figure 1> Esther lucas shields, faculty, and graduate members

- \* 뒷줄 가장 왼쪽: H. J. Hirst 교수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수이며 간호학생 교육에도 참여한 산부인과 전공 교수
- \* 왼쪽에서 네 번째: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창설한 E. L. Shields
- \* 왼쪽에서 다섯 번째: 1918년 당시 간호부양성소 소장이었던 K. N. Esteb
- \*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간호부양성소 기숙사 사감이었던 J. P. Campbell
- \* 가장 오른쪽: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 O. R. Avison.
- \*\* 교포: 가운데 교표에는 Nursing을 표시하는 N 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Severance Hospital Training School의 약자인 S H T S 가 있다. 왼쪽 끝에는 십자가(cross)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점차 증가하여 지원자가 북쪽의 강계로부터, 그리고 남쪽의 부산에서도 지원하였으며, 입학자격도 상향조정되기도 하였으며, 입학하지 못한 대기생들도 생겼다.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을 지도하면서 Shields는 1907년에 다음과 같은 간호사의 12가지 생활수칙을 강조하였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8).

1. 청결하라
2. 침묵하라
3. 낙관적으로 생활하라
4. 상식을 활용하라
5. 최선을 다하라
6. 이름을 기억하라
7. 물품을 아껴라
8. 협동하라
9. 환자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라
10. 환자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

11. 인성(人性)을 길러라

12. 항상 활기차게 생활하고 자주 미소 지어라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의 운영이 전차 안정되어 가자 Shields는 간호부양성소 원장직을 미국 북장로회에서 온 Forsyth에게 위임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하여 모성보건 및 보건간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들을 병원으로 연계하고 필요로 되는 교육들도 제공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Avison (1914)이 북장로회 선교부에 보고한 내용 중 삽입되어 있는 내용으로 Shields의 보건간호사업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Shields는 한 여성이 아픈 가슴으로 네 살 된 아이를 수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여성은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고 건강은 완전히 엉망이었으며 두세살 정도위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거의 도와주

지 않았다. Shields는 그 여성에게 수유를 멈추게 하고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하도록 설득하고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왔다. 그녀는 병동에 입원하자 따뜻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후,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한숨을 지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일주일이 되어 기습의 상태는 좋아졌고 건강도 회복되어 그녀는 집으로 올라갔으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Shields는 42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간호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하였는데, 그의 기여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창립하고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일.
- 한국 최초로 보건의간호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한 일.
- 병원 내에 간호행정부서인 간호원장제를 시작한 일.
- 최초로 여성 전문직 중앙단체인 재선 졸업간호부회를 창설한 후, 점차 한국인으로 구성된 간호부회로 이관시킴으로써 대한간호협회의 뿌리인 조선간호부회를 창설케 한 일.

Shields는 42년간의 일생을 한국에 바친 ‘한국의 나이팅게일’이자 ‘세브란스의 천사’였다. 그는 1923년까지는 간호교육의 책임자로서, 그 이후부터 1939년 귀국할 때까지는 책임자의 지위를 후진에게 인계한 후, 임상의 장에서 간호의 참 모습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996).

Shields에 대해 전해온 일화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28년 12월 26일 쉘즈의 친구들은 한국에서 회갑을 맞이한 쉘즈를 위해 회갑연을 준비해 축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쉘즈는 '나는 의복거처가 아직 불편함이 없으니 그 돈으로 목마른 병자를 위하여 병원 어떤 곳에 목마른 병자를 위하여 음료용 분수기를 설치해 주시오' 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친구들은 쉘즈의 뜻을 기려 세브란스병원 세곳에 쉘즈의 이름으로 분수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였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8).

● J. P. Campbell

Campbell은 1897년 미국 남선교회로부터 파송되어 1920년까지 한국에 머물렀으며,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호부양성소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였다.

● Ella B. Burpee

1909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되었다. 1909년 10월 7일에 열린 ‘재선졸업간호부회(Graduate Nurses' Association in Korea)’

의 연례회의에서 ‘한국에서 보건의간호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요지문을 발표하여 한국에서 병원간호뿐 아니라 보건의간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다음은 Burpee가 발표한 내용의 요약문이다(Shields, 1909).

‘한국에는 집을 떠나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간호에 대한 요구는 늘 존재한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집에서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들이 돌봄을 받기 위해 기꺼이 병원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병실이나 적절한 의료진이 과연 있는가? 따라서 이상적인 방법은 한국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언어를 잘 아는 외국인 간호사를 두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인 간호사의 업무를 감독,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보건의간호의 목표는 훈련된 간호사들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수의 외국인 간호선교사 및 한국인 간호사들이 병원간호만 담당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었기 때문에 Burpee가 제안한 보건의간호사업은 즉시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T. L. Ludlow

1912년 미국 북장로회로부터 파송되었으며 1938년까지 Shields를 도와 한국의 모자보건과 보건의간호의 기초를 세웠다. Ludlow는 예비 엄마들에게 분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질병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신생아를 어떻게 돌보는지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Ludlow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도와주었는데, 아픈 아이들이 있는 집도 방문하여 엄마에게 아픈 아이들의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질병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였다(Ludlow, 1926).

Ludlow가 1919년 북장로회에 보낸 보고서는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가 초기 교육에는 학생모집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곧 우수한 여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었고, 미국의 간호사들만큼 능력 있는 간호사들임을 보고하고 있다.

‘지금처럼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소의 미래가 밝게 비춰진 적은 역사상 없었다. 훌륭한 외국 간호 선교사들로부터 간호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과 환자 간호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한국의 간호학생들도 몇 년 전과 비교하여 달라졌다. 예전에는 간호학생들이 무지한 자, 무학력 자, 버림받은 부인과 거주지가 없는 과부들 중에 선정하였었다. 그러나 현재는 마음속에 한국인을 도우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이 입학하고 있다. 그들은 평생 직업으로 간호

전문직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미국의 일반적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만 큼 현명한 40 명의 간호사들을 갖고 있다(Ludlow, 1919).

● 그 외에 활동한 선교사들

• H. Forsyth와 K. M. Esteb

Forsyth는 1911년 미국 북장로회로부터 파송되었으며, 1911년부터 4년간 Shields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Esteb는 1915년 미국 북장로회로부터 파송되었으며, Forsyth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장으로 활동하였으나 1922년에 청주로 옮겨갔다(Smith, 1940).

• E. J. Shepping

1912년 미국 남선교회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로써 초기에 1915년까지는 군산 애킨스병원에서 활동하였으나, 1916년부터는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에서 교육에 참여하였다. 1934년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서울, 군산, 광주에서 활동하였다.

• G. Napier와 E. Hughes

Napier는 1916년 호주 장로회로부터 파송되어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운영과 교육을 도왔으며, Hughes는 1916년 캐나다 장로회로부터 파송되어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에서 근무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곧 귀국하였다.

• G. Harris

1916년 미국 남감리회로부터 파송되었다.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는 191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산파간호부양성소(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Training School for Nurses)로 개칭되면서 여러 선교회가 연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Harris는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를 지방의 작은 병원들과 연계하여 간호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Harris는 3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학생을 작은 병원에서 2년이나 2년 반 동안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한 다음, 세브란스병원에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Harris, 1916). 그러나 Harris의 이러한 건의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와 몇 개의 병원에서 독립적으로 간호사 양성업무가 진행되었다(이만열, 2003).

• M. Reiner, E 와 B. Berkins, 및 F. Fisher

Reiner는 1916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써 다른 곳으로 활동지를 옮기기 전에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일을 도왔다. Berkins는 1915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고, Fisher도 1916년 페르시아 선교부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로써 주로 활동은 대구지역에서 하였으나 여름에는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도왔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999).

## 논 의

한국 간호는 학교 수나 졸업생수 규모에서나 세계 속에 간호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한국 간호가 발전한데에는 한국 간호를 처음 시작한 외국 선교사들의 기여에 의한 것이다. 그간 간호교육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간호역사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 왔다(김문실, 1998; 박정호, 1989; 이광자 등, 1991; 이꽃메, 2002; 이귀향, 1966; 이영복, 1979; 이윤주, 2000; 이자형, 1986). 그러나 그간 수행된 간호역사 연구 중에서 한국 간호에 기여한 선교사들만 다룬 연구보고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10년 첫 졸업생을 낸지 2010년으로 100주년이 된 연세 간호가 태동하는데 기여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간호 발전에 초석을 놓은 선교사들을 기억하고자 수행되었다.

한국 간호교육의 시작은 1903년 보구녀관 간호부양성소에서 시작되었으며, 1906년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가 뒤를 이어 창설되었었다. 그러나 보구녀관 간호부양성소는 1933년 폐소되었기 때문에, 본연구의 범위는 2010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간호사배출 100주년을 맞이하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초기 간호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창설부터 191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산파간호부양성소로 개칭하기 전까지의 초기 교육에 기여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의 주요 출처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선교회에 보고한 보고서인 Korea Mission Field이다. 그간 수행된 의료 및 간호역사연구들도 다수가 Korea Mission Field를 근간으로 수행되었었다. 본 연구에서도 북장로회가 처음 간호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1895년부터 1917년 사이에 기록된 Korea Mission Field에 포함된 간호선교사들은 모두 확인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1916년 이후부터 다국적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선교사들에 관한 기록은 선교사명과 파송 시기 정도만 기록이 남아있을 뿐 구체적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이 적어서 활동내용을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Korea Mission Field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선교사에 한하여 자료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은 하였으나 Korea Mission Field에 보고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누락되었을 제한점이 있다. 이만열(2010)은 한국간호가 시작된 것은 외국 간호선교사들에 의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교사들에 의한 활동내용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초기 한국간호에 기여한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초기 간호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이들의 기여도를 기릴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시작한 간호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단지 환자간호를 위해 필요로 되는 인력을 교육하였다는 것 외에 한국 여성 해방 운동이었다. 초기의 간호교육기관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모집이었다. 그 당시에 한국 여성들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집밖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겼던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미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기녀들을 간호사로 기용하기도 하였다(박형우, 2000).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에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간호부양성소를 시작한 1906년에는 입학생을 모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07년에는 2명을 입학시켰는데 그중 1명이 연동여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김배세였다. 1910년 6월 10일 2명 입학생중 1명인 김배세를 졸업시켰다. 김배세는 영어실력이 좋아 간호학생 때부터 영어 간호학 교과서를 번역하여 간호교과서로 사용하도록 도왔다. 졸업 후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몇 년간 간호과 부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11~1912년에는 ‘환자들의 음식’에 관한 전사회를 주도하기도 하였고, 미국의 간호잡지에 실린 ‘페렴간호’를 번역하여 간호사협회에서 발표하기도 하는 등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1회 졸업생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8). 제1회 졸업생이 졸업하자 그 후부터는 여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여학생들이 입학생으로 지원하여 입학생수보다 지원자수가 더 많게 되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간호교육을 시작하는데 기여한 것 이상으로 한국 여성들이 집밖으로 나와 사회에서 활동하게 하는 큰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국 여성 해방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의 간호선교사들은 간호교육뿐 아니라 보건간호를 시작하여 지역사회건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Shields는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가 필요로 되는 여성들을 간호하고 병원으로 의뢰하여 치료받도록 한 후, 가정에서 추후관리 하도록 하였다(Avison, 1914). 그 당시에는 환자를 가정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매우 터부시 해왔던 시기이므로 간호선교사들의 보건간호활동은 환자관리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도 되었다.

한국 최초 간호선교사로 미국 북선교회로부터 1895년 파송되었던 Jacobson은 2년 만에 병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마감하였다. 1917년 캐나다 선교회로부터 파송되었던 Hughes도 병을 얻어 곧 본국으로 후송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간호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한국에 파송되어 와서 젊음을 바친 간호선교

사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한국간호는 세계 속의 간호로 복돋움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자료 확보의 미비로 인하여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외국간호선교사들에 의해 연세 간호가 시작되었고, 초기에 특히 외국 선교사들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연세간호 초기에 기여한 외국간호선교사들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대상자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외국간호선교사들에 대한 역사연구는 활동시기의 확대, 그들의 활동영역에 따라 교육과 봉사의 틀로 분류하는 시도, 본국에서의 그들의 활동 및 배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간호역사 연구가 필요로 된다.

1900년 초 무지의 한국 땅에 왔던 외국 간호선교사들처럼 현재 다수의 한국 간호사들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간호선교사들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 나라에도 간호가 새롭게 발전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세간호를 시작하는데 초석이 되었던 외국간호선교사들이 1895년부터 1917년까지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시기의 기여도를 기술한 연구이다. 여성이 가정 밖으로 나와 활동하기도 어려운 시절에 간호교육을 시작한 간호선교사들은 간호교육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여성을 사회 속으로 이끌어 내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간호선교사들은 현재 까지도 한국의 간호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17년까지의 시기에 기여한 선교사들을 포함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간호선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로 되며, 이런 연구들은 한국 간호를 위해 헌신한 간호선교사들의 노고를 기리고 보답하는 작은 노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실 (1998). *간호의 역사*. 서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 박운재 (1999). 시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간호부양성소 일람. *연세의학사*, 3(1), 111-121.
- 박형우 (2002). 우리나라 서양의학 도입 초기의 간호활동과 제증원. *간호학탐구*, 9(2), 48.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996).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사(1906-1985)*, 서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8). *연세간호 100년의 이야기 (1906-2006)*, 서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999). *延世醫史學*, 3(1), 113.

- 이광자, 남정자, 배경진, 이은정, 임현자, 전현숙, 황인선 (1991). 한국 간호교육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대한간호* 30(5), 83-94.
- 이귀향 (1966). *한국 간호교육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꽃메 (2002). *한국근대간호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만열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 이만열 (2010, 10월). *한국간호 100년. 연세대학교 간호사배출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
- 이영복 (1979). *간호사*. 서울: 수문사.
- 이윤주 (2000). 간호역사관련 연구: 우리나라 근대 간호의 도입과 정착. *간호학탐구* 9(2), 79-104.
- 이자형 (1986). 한국개화기의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5(5), 40-50.
- 제이콥슨 죽음에 관한 기사. (1987, 1, 21). 독립신문.
- 한국간호교육의 발전사. (1989, 11, 2). 간협신보, 4면.
- 한국간호평가원 (2010). *간호교육통계*.
- 홍신영 (1972). *한국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Avison, O. R. (1914). Social Service and the Hospital. *Korean Mission Field*, 10(7), 204-206.
- Harris, G. (1916). The Future of the Korean Nurse. *Korea Mission Field*, Feb, 46-47.
- Ludlow, T. L. (1919). Is it worth while to train Korean Nurses?. *Korean Mission Field*, 15(10), 217-218.
- Ludlow, T. L. (1926). Further records of flood relief. *Korean Mission Field*, 22(6), 132-133.
- Shields, E. L. (1909). The annual meeting of 'The Graduate Nurses' Association in Korea. *Korean Mission Field*, 5(12), 218-220.
- Smith, L. M. (1940). Korean Nurses-Then and Now. *Korea Mission Field*. Mar, 51.

## Foreign Nurse Missionaries Starting Yonsei Nursing School

Lee, Chung Yul<sup>1)</sup> · Cho, Yoon Hee<sup>2)</sup> · Ko, Ji Sook<sup>3)</sup> · Kim, Jung Ae<sup>4)</sup>

1) Professor,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3) Teaching Assista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4)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Purpose:** Nursing in Korea was started by foreign nurse missionari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cognize the foreign nurse missionaries contribution with the development of Yonsei nursing education in Korea. **Method:** This study used an historical study approach. The study target was foreign nurse missionary contributions during 1895~1917.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existing historical nursing studies and Korean Mission Field. **Result:** Since A.P. Jacobson, the first nurse missionary from the North Mission branch in America in 1895, there were 16 missionaries sent to Korea. Among them, 14 missionaries worked for Severance Hospital Nurse Training School. 7 missionaries served less than 10 years and 5 missionaries stayed in Korea more than 20 years. E.L. Shields served the longest time with 42 years in Korea. They contributed not only in nursing education and services in the hospital, but also public health in the community. **Conclusion:** Foreign nurse missionaries were a cornerstone for nursing development in Korea. They contributed by not only starting nursing education, but also giving women freedom into Korean society. The historical research regarding foreign nurse missionaries during early 1900s helped to recognize their effort for Korean nursing and society.

**Key words :** Foreign nurse missionaries, Korean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ung Ae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PO Box 57, post office Sockcho-si, Gangwon-do, Korea

Tel: 82-33-639-0234 E-mail: jakim@k1.ac.kr